



보육교직원 심리·정서가 불안하다

-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참여 수 코로나 전후 5.87배 늘어
- 보육활동 침해 30.1%...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
-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61.9% 속으로 참아
- 인제근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과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 “보호체계 마련에 정부와 국회 적극 나서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06호 / TEL 02-784-8091~3 / FAX 02-6788-7120 ■

코로나19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어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제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 건강지원을 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 참여인원 수는 코로나19 전인 3년(2016-2019년)까지 연평균 6,293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은 36,956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로 5.87배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육교직원 상담지원 참여자는 코로나19 전인 2년(2018-2019년) 평균은 30,567건, 코로나19 기간인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은 18,462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등원한 영유아 중 경계선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영유아의 증가로 보육 활동·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 되고 있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받기 힘들다. 법적대응을 위해 찾아갈 곳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육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해도 속으로 삭이는 수밖에 없다.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1,022명에 대한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업무 수행 중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 61.9%가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130개 중 심리상담 전문요원은 67명뿐이다. 상담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센터가 더 많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비하다.

인재근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과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고 지적했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심리안정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호체계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보육교직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1. 마음성장 프로젝트(출처:한국보육진흥원, 인재근의원실 재구성)

- (사업목적)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감 및 인성함양 지원을 통해 보유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료인원	6,721	6,927	32,916	34,167	43,786

2.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현황(출처: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29,263	31,872	18,236	17,440	19,711

3. 2021년 보육실태조사 중

- 보육교직원, 부모 등으로부터의 권리침해 여부 및 가해자 유형

단위: %(명)

구분	권리침해 피해 여부			권리침해 주체					(수)
	피해 비율	(수)	X'(df)	원장,대표자,위탁업체	동료 보육교직원	부모	기타	없음	
전체	30.1	(3,300)		33.0	14.6	71.9	1.9	-	(99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1.4	(657)		38.3	16.5	66.0	3.9	-	(206)
사회복지법인	31.8	(359)		27.2	15.8	79.8	2.6	-	(114)
법인단체등	35.9	(217)	18.8(5)**	25.6	19.2	74.4	1.3	-	(78)
민간	29.2	(791)		31.2	16.0	74.0	1.7	-	(231)
가정	25.9	(954)		32.8	8.5	72.1	0.4	-	(247)
직장	36.3	(322)		38.5	17.1	68.4	1.7	-	(117)
소재지									
대도시	30.2	(1,183)		34.7	13.7	72.3	2.5	-	(357)
중소도시	30.2	(1,254)	0.1(2)	34.8	14.0	69.4	1.3	-	(379)
농어촌	29.8	(863)		28.0	16.7	75.1	1.9	-	(257)
규모									
20명 이하	26.9	(1,338)		36.7	12.8	68.3	1.1	-	(360)
21~39명	27.1	(689)	24.2(3)***	38.5	19.3	67.4	2.1	-	(187)
40~79명	35.3	(885)		28.5	15.7	75.3	2.6	-	(312)
80명 이상	34.5	(388)		26.1	10.4	79.9	2.2	-	(134)
담당반									
영아반	29.0	(2,317)		34.9	14.9	70.0	1.5	-	(671)
유아반	32.2	(922)	6.8(2)*	28.3	13.5	76.1	2.7	-	(297)
장애아반	41.0	(61)		40.0	20.0	72.0	4.0	-	(25)

주: 권리침해 주체는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교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보육교사 인식조사 결과(출처: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업무 수행중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질문한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순위,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n	%	n	%
어차피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혼자서 참는다.	72	18.5 %	48	12.3 %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소연은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113	29.0 %	79	20.3 %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교사로 낙인 될 것 같아서 참는다.	56	14.4 %	66	16.9 %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34	8.7 %	57	14.6 %
어린이집에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8	12.3 %	68	17.4 %
어린이집의 상사(원장 혹은 원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62	15.9 %	43	11.0 %
상담센터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한다.	3	0.8 %	13	3.3 %
노동조합,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한다.	-	-	3	0.8 %
고용노동부 혹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혹은 재단(상급단체)에 민원을 넣는다.	1	0.3 %	7	1.8 %
기타 의견	1	0.3 %	6	1.5 %